

■ 교육

이제 11학년 차례다



▲ 11학년들은 지금 부족한 대학 준비 요소들을 보강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2021학년도 대학입시 열리 결과가 발표되고, 이어 레귤러 원서를 접수 중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마감된다. 이제는 11학년 차례라는 뜻이다. 현재 11학년의 경우 열리 원서 마감까지 불과 1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11학년들은 지금 부족한 대학 준비 요소들을 보강해야 할 시간이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11학년들은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 GPA 잘 받고 과목 잘 선택하기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학업 성적과 학생이 수강한 과목의 난이도, 그리고 대학 예비과정인 AP, IB, A 레벨이다. 많은 학부모들은 SAT가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업 성적과 학교에서 얼마나 도전적인 과목을 들었는가 중요하다. 11학년 성적은 그 어느 학년보다 중요하다. 11학년 성적을 망쳤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은 낮아진다.

■ 표준화 시험 계획 세우기

표준화 시험(SAT, ACT) 성적을 확보하는 것은 11학년들에게 시급한 준비 가운데 하나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표준화 시험 성적을 읍서널로 요구하거나 아예 요구하지 않은 대학들이 늘었다. 하지만 내년 입시에서도 그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학입시에서 과거보다 표준화 시험 성적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T-ACT 시험을 언제 볼 것인지, 몇 번을 볼 것인지 등의 전략을 짜야 한다. SAT, ACT 시험은 단기간 준비해서 고득점을 얻기는 어렵다.

■ 지원할 대학 리스트 만들기

누구나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있다. 그 대학 리스트가 구체적인 학생이 있는가 하면 막연하게 '좋은 대학' '일류 대학' 이라는 모호한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 11학년이라면 지원할 대학의 리스트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자신이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

■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하기

대학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 부모의 학비 부담 능력 여부다. 하버드, 예일 대학 등 미국의 최상위권 꿈의 대학에 합격을 해도 학비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림의 떡' 이다. 만일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학비 조달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짜야 한다. 이것도 역시 전략이다. 대학 리스트를 만드는 데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 재정 문제다.

■ 특별활동을 점검하기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요소는 매우 중요해진다. 자신이 9학년부터 해 온 특별활동을 점검하라. 이것을 resume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학생의 장점으로 부각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별활동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11학년 2학기 때에도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방학 때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특별활동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헌팅턴 센트럴 파크(Huntington Central Park) - city of Huntington Beach

주말에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가 있다. 음식을 차려 먹기도 귀찮은 날, 그렇다고 쭈뼛이 굵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날은 식사도 하고 걸을 수도 있는 헌팅턴 센트럴 파크(Huntington Central Park)가 제격이다.

헌팅턴 센트럴 파크에 있는 Park Bench Cafe는 아침과 점심 식사만 서브하는 식당이다. 어떻게 공원 안에 이런 식당을 차릴 수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공원과 잘 어울려 공원의 부대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식당은 애완견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와 식사를 한다. 그들끼리 꼬리를 치고 으르렁거리기도 한다.

식사를 하고 호수에서 노니는 오리 떼를 바라보며 걷는다. 다람쥐들도 만난다. 오리도 다람쥐도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어 인기척이 나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어떤 다람쥐는 사람에게 달려오기도 하고 포즈를 취해주기도 한다.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도록 운동 시설을 군데 군데 갖추어 놓았다. 걷다가 잠시 쉬면서 시설을 이용해도 좋다. 공연이 가능

한 계단식 야외 음악당도 갖추어 있다.

특히 공원 안에 따로 울타리를 쳐 놓고 Secret Garden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곳이 있다. 서울의 비원을 기대했다가는 실망이 클 수도 있다. 아기가자하게 꾸며 놓았지만 비밀스러운 것이라고는 없는 그저 작은 정원에 불과하다. 한 바퀴 돌고 나와 걷던 방향으로 또 걷는다. 한 바퀴 돌고나면 직성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 바퀴를 더 돌아도 좋다. 그러나 같은 곳을 계속 돌기 싫다면 헌팅턴 비치로 간다. 자동차로 10여 분만 가면 바다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핑의 명소, 헌팅턴 비치가가 가까이 있으니 소화도 시킬 겸 바닷가를 걸어도 좋고 피어 끝까지 걸어가 태평양을 바라보며 시를 한 수 읊고 와도 좋다.

■ Park Bench Cafe

(714)842-0775
17732 Goldenwest St.
Huntington Beach, CA 92647

■ Huntington Central Park

(714)536-5486
18002 Goldentwest St.
Huntington Beach, CA 92648



▲ Park Bench Cafe(왼쪽)와 호수에서 노니는 오리 떼. 사진=타운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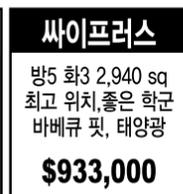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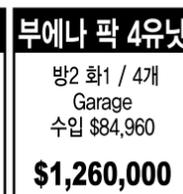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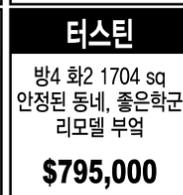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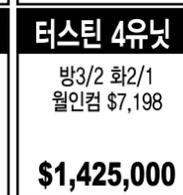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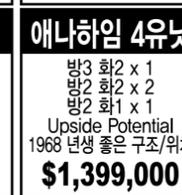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주택, 아파트, 상가, 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부에나팍 방5 화3 3,118 sq 최고위치 Los Coyotes골프장 근처 부엌, 화장실 리모델 인공폭포, 많은 과일나무 \$1,199,000	 사이프러스 방5 화3 2,940 sq 최고 위치, 좋은 학교 바베큐 팻, 태양광 \$933,000	 부에나 팍 4유닛 방2 화1 / 4개 Garage 수입 \$84,960 \$1,260,000	 오바린다 3유닛 방3 화2 Garage, 2006년생 수입 \$100,800 \$1,999,000	 오렌지 4유닛 방2 화1 x 3 방2 화2 x 1 1979년생 연인컴 \$87K 좋은 위치, 교통 편리 좋은 동네 사파몰 근처 \$1,280,000	 코스타메사 4유닛 방2 화1 x 4 1965년생 연인컴 \$75,300 좋은 위치, 교통 편리 렌트 선호 지역 \$1,375,000
 오렌지 방5 화3 2,685 sq 오렌지 힐 근처 최고의 위치, 동네 부엌, 화장실 리모델 준비중 \$1,100,000	 터스틴 방4 화2 1704 sq 안정된 동네, 좋은학교 리모델 부엌 \$795,000	 애나하임 6유닛 방2/1 화1 대지 9,148 sq 월 인컴 약 \$8,545 \$1,399,000	 터스틴 4유닛 방3/2 화2/1 월인컴 \$7,198 \$1,425,000	 애나하임 4유닛 방3 화2 x 1 방2 화2 x 2 방2 화1 x 1 Upside Potential 1968년생 좋은 구조/위치 \$1,399,000	 리하브라 4유닛 방2 화2 x 4 1962년생 연인컴 \$83,850 교통편리, 선호 지역 \$1,230,000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